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연간 69만톤 누수 절감

유수율 85% 목표, 86.6%로 초과 달성
2018년부터 6년간 282억원 예산 투입
도곡면 등 상수관망 노후 누수를 개선
수돗물 생산비 15억원 비용 절감 효과

화순군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화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목표 유수율 85%를 초과(86.6%) 달성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았다. 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연간 69만톤의 누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8년부터 총 6년간 2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화순읍·능주면·도곡면 일원의 7개의 소블록으로 세분화해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를 개선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엔지니어링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

측기 등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누수복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 예상 목표 유수율 85%보다 높은 86.6%를 달성했다. 이 수치는 2018년 64.9%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21.7% 향상해 연간 69만 톤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수돗물 생산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5억원 비용을 절감한 것.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각 가정집에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이며 유수율을 잘 관리하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소중한 물 자원 보존에 이바지한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이 목표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과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앞으

로도 화순읍의 유수율 제고와 관망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먼 지역까지 확대하여 화순군의 전반적인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수질, 수압 등의 지방상수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완도군, 17명 채용

완도군이 '2024년도 제6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실시해 지방공무원 17명을 신규 채용한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임용 직급은 9급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토목 8명, 건축 5명, 방재 안전 1명, 일반 환경 1명, 속기 1명이다.

완도군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24년 경력경쟁 채용 시험부터 인성·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인성·적성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직무 성향과 조직 적응력 및 공직자로서의 친절 의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면접시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6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일정은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 후 11월 23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임용 등록 및 발령을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완도=정태영 기자

10월 문화의 달 특별강연 담양군, 29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군이 군민을 위한 열린 강좌 '21세기 담양포럼'을 오는 29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24일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가사문학과 정자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의 고장인 담양의 선비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기획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관광전문위원을 초청해 진행되는 강연은 소극적인 선비 인식에서 벗어나 조선 왕조의 역사결정을 주도한 적극적인 선비 인식을 제고하고 고택에 담긴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 관계자들이 오는 27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심청어린이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최종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현장점검 마무리 방문객 맞이 준비 완료

곡성군이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2일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행사장 기반 시설과 경관, 전기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을 면밀히 점검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화장실과 먹거리존 등의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기차마을 주차장 및 인근 주

차장 안내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접근성 향상에 주력했다

기차마을 후문 입구 상수리길에는 자연 친화적인 나무 파레트로 제작된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영유아 가족을 위한 유모차 대여소와 모유수유실을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면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무료입장을 원하는 방문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기차마을 매표소에서

확인 후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축제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곡성섬진강기차마을은 약 24만㎡ 규모의 국내 최대 기차 테마파크로 증기기관차와 꼬마기차,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기차 관련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김대영 기자

영광군, 가구주택 기초 조사 실시

11월8일부터 27일까지

영광군은 오는 11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거주 및 가구 정보를 확인해 내년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률 마련을 위한 대규모 조사이다.

조사 대상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주(빈집 포함) 및 가구로 관내 2만 3117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거주 단위와 가구단위 항목으로 나누어 빈집 여부, 거주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인력 16명을 선발해 조사대상 거처에 대한 현장확인인고 일부 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모든 거처와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주거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다"며 "향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여성어업인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영광군, 만 51세 이상 대상

영광군은 어업과 가사의 이중노동을 하고있는 여성어업인들에게 어업 질환 관련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화 건강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여성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을 없애고 검진비 전액을 지원한다.

검진과목은 여성어업인에게 취약한 6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난청(소음) 등 기존 검진과는 달리 여성어업인에게 특화되어 있고 어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영광종합병원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검진 신청방법은 영광군 해양수산과 및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관리기관에서 검진 날짜 및 시간을 검진대상자 개인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많은 여성어업인이 특화건강검진을 통해 직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없이 어업에 종사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갯벌낙지축제 현장 이벤트 맛들무안몰, 26~27일 진행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들무안몰'이 2024년 무안갯벌낙지축제를 맞아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무안낙지갯벌축제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축제장 내 홍보부스에서 진행되며 맛들무안몰 신규 회원 가입 시 쇼핑몰 대표 인기 상품인 쌀, 양파, 동천견조마늘 등 다양한 농특산물 선물을 증정한다.

홍보부스에서는 무안 대표 농특산물과 맛들무안몰에서 판매하는 다채로운 상품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무안의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알릴 예정이다.

현재도 '맛들무안몰'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철제맛 고구마 20% 할인 기획전'과 '한돈 위크 10% 할인 특가전'이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맛들무안몰의 현장 이벤트가 축제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더해줄 길 바란다"며 "방문객과 군민들이 무안의 맛과 멋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한 '맛들무안몰'은 지난 4월 말 개장한 이후 회원 수 1만5000명을 확보했으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꾸준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안=김행연 기자